

방송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 의미화 과정에 관한 연구*:

2008년 경제위기 뉴스 분석**

김수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박승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방송 경제 뉴스가 생산한 정치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 결과 한국 방송 경제위기 뉴스는 객관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탈정치화된 사실 보도 관행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첫째, '개별 뉴스'의 틀에서 경제 위기 뉴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단기적 수치 정보에 편향됨으로써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탈맥락화되었다. 둘째, 각각의 개별 뉴스들이 상호 결합되는 '뉴스 패키지'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 원인과 책임, 해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고차원적 정치 의미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즉, 문제의 원인과 책임의 주체로서는 민간부문이 설정되는 반면, 문제의 정의와 해결의 주체로서는 정부가 부각되는 패키지 구성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셋째, 경제위기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의제 설정 방향은 종속적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인터뷰의 선택과 기자들의 클로징 멘트에서도 방송 언론인은 정부입장의 중립적 전달자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뉴스보도의 자율적 주체라기보다는 국가 위기관리의 도구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송은 경제위기 보도에서 개별 뉴스 차원에서는 "경제"의 의미를 수치적 정보의 나열로 축소, 탈맥락화 하는 반면, 뉴스 패키지 차원에서는 정부의 통치 능력 강화라는 재맥락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이중적 정치 의미화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Key words : 방송 뉴스, 경제위기, 객관주의, 정치 의미화, 뉴스 패키지,

* 본 논문은 김수영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sooyungkim@naver.com

**** park@snu.ac.kr

1. 문제의 제기

오늘날의 뉴스 미디어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뉴스의 복잡한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Gans, 2003). 가령, 경제 뉴스가 추상적 수치만을 부각시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서민 경제의 관점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 자료에 의존하는 경제 뉴스들은 경제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심층적 맥락과 분리된 채 정부와 대기업의 목소리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뉴스 미디어들의 경제 뉴스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제정임, 2003). 지난 2008년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경제위기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제 뉴스가 부분적인 시장 상황의 전달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인 경제위기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이성철, 2008). 뉴스 수용자들이 2008년 당시 가장 신뢰하는 경제 뉴스 매체로 평가했던 방송 뉴스(언론재단, 2008)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경제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들어서기 직전인 2008년 9월 첫째 주부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김성해·김춘식·김화년, 2010).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난 후, 방송 경제 뉴스에서는 위기 현실이 부정되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사가 파산하고 난 이후에서야 방송 뉴스들은 경제위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 경향은 한국 주요 방송 3사의 프라임 타임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 9〉,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제위기 보도 방식은 ‘객관적 현실’(objective reality)과 ‘미디어 현실’(media reality) 사이의 괴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 수치 변동 자료에 치우친 객관주의 경제 뉴스 보도 관행이 경제위기 상황의 핵심적 맥락 정보를 뉴스 수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령, 한국 방송 뉴스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의 등락 내용은 신속하게 전달했지만 금융 위기 상황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 평가, 예측하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금융 위기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들은 간과되는 경향이 노정되었다.

둘째, 방송 경제 뉴스를 통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의미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언론은 공공 문제에 대해 문제의 정의, 발생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해 조직화된 의미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를 구성해 낸다(Entman, 1993). 가령, 한국 방송 경제 뉴스는 2008년 9월 초, 당시 상황은 금융 위기가 아니며 오직 위기설을 유포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 보도하였다. 금융 시장의 동요에 대한 리포트들은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수치적 묘사만을 담고 있었지만, 이들 개

별 리포트들이 다시 서로 결합됨으로써 정부의 주장을 반영, 옹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위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관련 방송 기사들의 전체 흐름 속에서 문제 구조와 중요 행위자(문제 원인 제공자, 해결 책임자 등)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면서 하나의 총체적인 정치적 의미망이 생성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적 리포트들을 함께 묶어 패키지화하여 전달하는 한국 방송 뉴스의 형식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개별적 경제 리포트들이 전체 뉴스의 한 부분으로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의미화와 그것의 발생 경로를 추적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방송 경제 뉴스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행한 역할의 본질, 그리고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경제위기 관련 개별 뉴스의 정치 의미화 과정

경제 뉴스는 사회, 정치 등 다른 분야 뉴스보다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형식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제 뉴스가 정치, 외교, 군사, 환경 문제 등과 달리 통계나 공식적인 지표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완수, 2008). 이러한 경향성에 근거를 두고 언론인들은 현장에서 얻은 사실과 정보만이 경제 뉴스의 토대가 되므로, 경제뉴스에서 정치성은 배제된다고 주장한다(심재철, 1997).

경제 뉴스에서 강조되는 객관주의는 본디 저널리즘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언론인들이 취재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chudson, 2003). 기자들이 특정한 정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 문제에 대해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 중립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균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Entman, 1989). 기자들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구체적인 논평을 기피하며 특정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내용은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게 된다(Schudson, 2003).

둘째,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한 뉴스 생산 관행은 ‘객관주의’ 논리에 의하여 강화 되고 있다(Tuchman, 1972, 1978). 객관주의는 증거 자료와 사실들에 기초한 뉴스의 정확성을 강조한다. 객관주의 관행은 내외부의 잠재적 비난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언론사 조직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Tuchman, 1972). 즉, 객관주의는 언론사의 뉴스 가치 판단과 실제 뉴스 제작 관행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객관주의 보도는 더 나아가 뉴스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Shoemaker & Reese,

1996). 언론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은 궁극적으로 뉴스의 내용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객관주의는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 사실에 고도의 비중을 부여하는 '비정치(apolitical)'적 뉴스를 생산하게 한다. 이렇게 확보된 뉴스의 비정치성은 언론사가 기관의 독립성과 뉴스 신뢰도를 주장할 수 있는 기초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주의 언론 보도가 반드시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뉴스 객관주의는 취재 업무의 효율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식적 뉴스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Kennamer, 1994). 언론은 정부의 정보 제공에 규칙적·체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관료들을 우선적인 취재원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정부 고위 관료 취재원들에게 공공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을 제공하고, 이후의 공적 토론의 내용과 방향을 제한하거나 틀지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Hall, 1978). 공식적 취재원에 대해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Iyengar & Kinder, 1987). 결국, 언론과 정부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조율해 나감으로써 언론의 기능이 정부 통치 과정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ntman, 1989).

둘째, 한국의 경제 뉴스 제작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출입처 제도가 관급 기사를 과다하게 만들고, 저널리즘의 획일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7).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의지하는 언론일수록 정부의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Gans, 2003). 한국 방송은 전문적인 경제 뉴스 취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 발표 자료들을 비판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제정임, 2003). 방송 뉴스는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 등 다른 매체들 보다 공식 취재원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Berkowitz, 1997). 방송은 영상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 습득과 인터뷰가 용이한 공식 취재원들의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Epstein, 2000).

셋째, 언론이 사회적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든 사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공공 의제로 부상되는 것은 아니며, 언론의 선별과정에 의하여 의제화 여부가 결정된다(박승관·장경섭, 2001). 언론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기사거리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정부가 중시하는 사회적 사안을 기사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hoenfeld, 1979).

넷째, 객관주의 뉴스는 결과적으로 현존 국가 권력 구조의 유지, 옹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 사건만을 조명하는 사실적 뉴스는 장기적 변화과정을 도외시할 수 있다. 사실 중심 보도에서 공백으로 남게 된 해석이나 분석 부분은 언론인들이 아니라 공식 취재원들이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엘리트 전문가들은 언론인들이 현상 유지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Entman, 1989).

결론적으로 객관주의 뉴스 보도는 사실들을 편향적·파편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문제의 구

조적·역사적 문맥을 해체, 탈각시키고, 문제의 심층적,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결여할 수 있다. 사실 전달 중심의 방송 뉴스는 복잡한 정책 문제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부나 사회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Iyengar, 1991). 추상화된 사실 정보들로 구성된 뉴스들은 심층적 해석 맥락을 해체시키고, 위기의 궁극적 해결 주체는 현존 국가체제, 정치질서라는 국가주의적, 체제순응적 정치 의미화를 유발하게 된다. 객관주의 뉴스 보도가 추구하는 비정치성은, 그와 정반대로 고도화된 정치성을 형성시키게 된다.

2) 경제위기 뉴스 패키지의 정치 의미화 과정

한국 방송 뉴스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외국 방송뉴스와 비교해 형식적으로 아이템 구성이 단순하며 개별 리포트 길이가 짧다는 형식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손승혜, 1999). 평균 짧은 리포트 30여개가 나열되는 방송 뉴스 프로그램은 기사 내용의 심층성이 떨어지고 분석보다는 사실적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이민웅, 1991). 방송 경제 뉴스 역시 평균 1분 20초 정도의 짧은 리포트 형식이 사안의 본질적 원인이나 다양한 배경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한계가 방송 경제 뉴스에서 경제부처의 정책 정리나 통계지표 설명과 같은 파편적 문제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강미은, 2007).

미국 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보통 10여개의 리포트로 구성되어, 1개의 뉴스 리포트가 관련 사안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짧은 뉴스 리포트 중심 편집 정책 때문에 특정 사안에 관하여 길이가 긴 한 개의 뉴스를 제작하기보다 여러 개의 짧은 리포트들로 나누어 제작하는 편집 기법, 즉 일련의 뉴스 아이템들을 하나의 뉴스 패키지(news package)로 묶어 편집하는 관행이 한국 방송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 패키지 안에서 개별 뉴스들이 전체 뉴스의 틀 안에서 배열되는 방식에 따라 개별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위의, 추가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방송 뉴스의 형식적 특성은 방송 뉴스가 생성시키는 정치 의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방송 뉴스의 정치적 의미는 개별 뉴스 아이템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뉴스 패키지 안에서 상호 연관된 뉴스 아이템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조직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뉴스 단위와 함께 관련 뉴스들의 연관성을 고려한 뉴스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뉴스 패키지는 의미 있는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

뉴스 패키지는 특정 이슈에 관련된 보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해 내거나 틀지울 수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뉴스 패키지는 그 안에 배열된 개별 뉴스들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통합해 내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뉴스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Entman, 1989).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편향성을 분석한 이민웅 등의 연구(2006)는 하

나의 주제로 연결된 방송 뉴스들을 묶음기사(bundle news) 개념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묶음 기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을 ‘비개혁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탄핵 반대 세력은 ‘역부족인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틀지워 냈다고 보고하였다.

뉴스 패키지는 개별 뉴스들을 통합해 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와 편향적인 정치적 의미 체계를 발생시킨다. 뉴스 패키지는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인과관계해석(causal interpretation), 책임 평가 평가(moral evaluation), 해결 방안제시(recommendation)를 포함하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특정한 지향을 선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고도화된 정치적 의미화를 생산해낸다(Entman, 1993).

그러므로 뉴스 패키지가 생성시키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스 구성 요소들의 결합되는 패턴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Pan & Kosicki, 1993). 또한, 뉴스 패키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독특한 문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나 행동과 같은 핵심적 이야기 구성 요소들을 분류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van Dijk, 1988).

3) 경제위기뉴스의 종합적 정치 의미화 과정

2008년 경제위기는 전세계적 대공황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지구적 경제위기로 확산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산 가치 하락과 소비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최혁, 2009). 이러한 상황 전개 과정에서 언론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의제 설정 기관으로 작동하게 된다(Dagenais, 1992).

정치경제적 위기 현실 속에서 언론이 노정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첫째, 위기 상황 속에서 언론은 사회의 여러 주체들 중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고도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은 정부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들이 해결 전략을 놓고 경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언론은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 속에서 위기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 특수 상황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는 상징전략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다(Edelman, 1977). 이와 관련하여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BBC>, <CNN>, <France24>, <CCTV>의 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에서도 이들 글로벌 방송사들이 각각 자국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보도 경향이 발견되었다(김성해·김동윤, 2009). 한국 언론의 2008년 경제위기 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별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태도가 위기설 보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사들은 ‘경제지표’와 ‘권위자’를 선택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경제 현실을 재구성하였다는 것이다(김성해·김춘식·김화년, 2010).

둘째, 언론이 위기 문제의 틀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관련된 뉴스가 구성해 내는 정

치적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언론은 공적 의제 경쟁 공간(public arena)에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sfield, 1981). 정책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틀과 함께 정책적 해결책과도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Rochefort & Cobb, 1994). 한국 경제위기 뉴스에 담긴 문제 구조는 원인분석에서 ‘외부적 요인’을 많이 지적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면적이고 추상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 원인은 한국 언론인의 전문성 부족, 고도의 노동 강도, 정부와 기업에 대해 높은 의존도에서 찾아지고 있다(김성해·안병익, 2007). 또한 언론은 위기 상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틀을 제공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며, 위기의 근본적 원인 분석보다는 대중적 해결책 제시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경제위기 뉴스는 정치인과 정부의 능력과 리더십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Iyengar, 1991; Sheaffer, 2007). 경험주의 연구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방송 뉴스 보도가 투표자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Sanders & Gavin, 2004). 결론적으로 방송 뉴스 보도는 사회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1) 방송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적 의미 생산 모형

한국 방송 뉴스의 객관주의는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제도로서의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객관성, 중립성, 균형보도, 해석 자제를 추구한다. 이러한 가치들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중립주의 또는 비정치성, 탈정치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주의가 추구하는 비정치성은 역설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의미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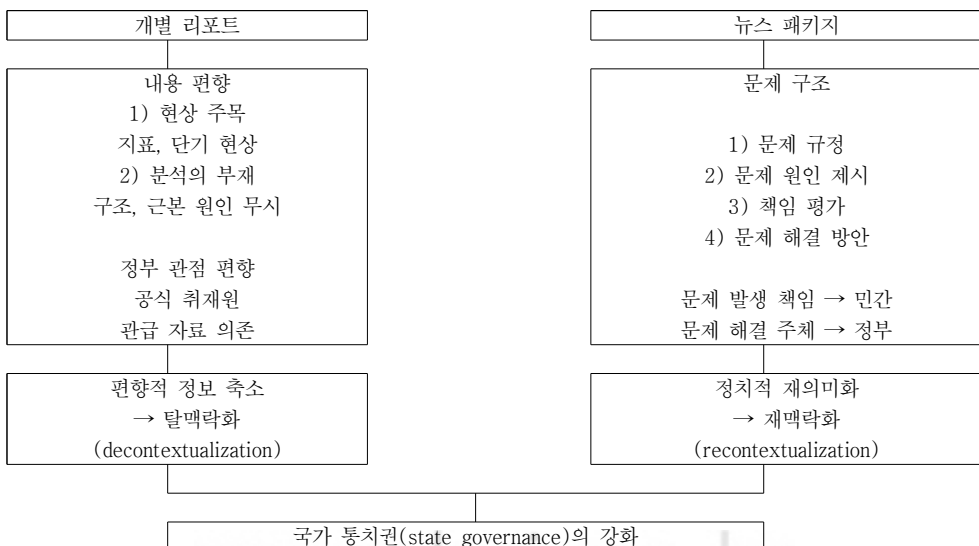
첫째,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치화된 자료와 해석을 고스란히 복제해 전달하며, 지표와 증세, 단기적인 단순 현상 전달에 머무른다. 반면, 경제 질서의 구조, 근본원인, 장기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사실을 나열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경기의 단기적 회복을 위한 대중요법을 중시하고 근본적 문제 치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별 방송 경제 뉴스는 하나의 사회의 근본 문제로서 경제위기 안에 담긴 총체성, 역사성, 책임성 등에 대한 분석은 사라진다. 사회문제로서의 경제위기는 추상화된 데이터의 나열 속에서 위축되고 탈맥락화된다. 그리하여 “경제” 자체는 해체, 파편화되고, 국가나 정부라는 “정

치” 주체에 의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조건이 구현된다. 즉, ‘경제’의 독립적 지위는 사라지고, ‘정치’의 대상으로 종속, 재편된다.

둘째, 다음 단계에서 방송 경제위기 뉴스는 각각의 개별 뉴스들이 상호 결합되는 “뉴스 패키지”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미를 생산해 낸다. 이 과정에서 개별 경제 뉴스들은 독립성이 상실되고 전체 뉴스의 부분으로서 재배열된다. 개별 뉴스들은 하나의 뉴스 패키지 안에서 문제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며 책임을 평가하는 틀로 재편성된다. 뉴스 패키지 안에서 문제 해결 주체와 행위들이 드러나며 해결 방안들이 제시된다. 경제 위기의 정의, 해석,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는 상호 연결된 주제 틀 속에서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적 의미가 재생성된다. 전체 관계, 즉 뉴스 패키지 배열 안에서 개별경제 뉴스에서는 탈락된 심층적 정치 의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부여된다.

뉴스 편집자들은 개별 뉴스들이 관련된 다른 뉴스들과 기계적으로 재결합하는 자연적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재결합 과정을 통하여 개별 뉴스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상위의, 제2차의, 초월적인 정치적 의미맥락이 재생된다. 개별 리포트 수준에서 “경제” 영역은 그 총체성이 해체되고 파편화하면서 탈맥락화되는 반면, 전체 뉴스 패키지 수준에서는 이들이 상호 결합되면서 재맥락화되고, 그 결과 고도의 정치적 의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 과정, 즉 경제위기 뉴스의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와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과정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방송 경제 뉴스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방송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 의미화 과정



방송 경제위기 뉴스가 발생시키는 최종적인 정치적 의미는 국가 통치권(state governance)의 강화로 요약된다. 가령, 방송 경제 뉴스는 경제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또는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우호적으로 정의하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존 국가 지배 질서를 옹호하고 그 역할을 정당화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1>처럼 요약될 수 있다.

(2) 연구 문제

지금까지의 이론적 성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국방송의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의 구성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의미화를 발생시키는가?
 - 1-1: 한국방송의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의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 1-2: 한국방송의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화를 발생시키는가?
- 연구문제 2: 한국방송의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는 뉴스 패키지 안에서 다른 뉴스와 어떠한 구조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치적 의미화는 무엇인가?
 - 2-1: 한국방송의 개별적 경제위기 뉴스는 하나의 뉴스 패키지 안에서 다른 뉴스와 어떠한 구조적 연관을 맺고 있는가?
 - 2-2: 한국방송 경제위기 뉴스는 뉴스 패키지 구조를 통하여 어떠한 정치적 의미화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한국방송 경제위기 뉴스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의미화는 종합적으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2008년 <KBS 뉴스 9> 가운데 경제위기 관련 보도가 가장 집중된 시기였던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2일 동안 보도된 기사 총395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KB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사 내용들과 영상 전체를 확보했다(이후부터는 <뉴스 9>로 표기). 첫째, <뉴스 9>를 선택한 이유는 시청률이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 프로그램들 보다 비교적 높았으며, 그만큼 방송 뉴스 중에서 영향력이 컸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청률 조사 기관인 AC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의 <KBS 뉴스9>의 시청률은 평균 20% 정도로 다른 방송사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http://www.agbnielsen.co.kr/>). 둘째, 한국 방송 뉴스의 특성상 제작 내용과 뉴스 편집 흐름이 주요 방송사들 간에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KBS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더라도 한국 방송 뉴스 전반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위기가 전체 뉴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관련 뉴스의 양이 풍부했다.

총395개의 기사에 대하여 내용 분석을 시행했으며 세 명의 코더가 코딩한 결과 코더간 상호 일치도(Kappa = 최저 0.80)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¹⁾. 세 코더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자의 판단을 최종적인 코딩 기준으로 삼았다.

내용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유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초점(focus of news)은 기사가 전달하고 있는 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사실을 구성하는 취재원과 전달 대상이 단일할 경우 단순한 사실로, 취재원과 전달 대상이 복수일 경우엔 복합적 사실로 분류했다. 또한 사실의 핵심 취재 대상을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었다.

둘째, 뉴스의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행위자(actor)는 이야기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subject)로 보았다. 방송 뉴스에서 주어가 분명히 제시되고 능동적 행동이 드러난 경우 행위자로 코딩했다. 따라서 모든 리포트에서 행위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뉴스 9>에서는 대통령, 공무원, 경제 전문가와 같은 인격적 주체와 함께 정부, 통화당국, 기업과 같은 기관들도 행위자로 제시됐다. 행위자들이 수행한 행동(action)은 정책 제시와 집행, 회의 개최, 문제시인, 구조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코딩했다.

셋째, 문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 정의자, 당면 문제, 문제의 원인, 문제의 책임, 문제의 해결에 관한 내용을 분석 단위로 삼았다. 리포트 내에서 현재의 당면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원인, 책임, 해결 가운데 하나의 항목이라도 지정한 주체를 문제 정의자로 보았다. 리포트 내에서 별도의 주체 제시 없이 당면 문제와 원인, 책임, 해결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사 작성자를 문제 정의자로 코딩했다. 당면 문제는 한국 금융 위기, 한국 경기 불황, 세계 금융 위기와 같은 구체적 항목들로 분류했으며,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경우 문제 부정(否定)으로 코딩했다. 원인 항목은 당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코딩했다. 책임 부분에서는 당면 문제에 대한 책임 대상이 지적된 경우에 코딩했으며 정부나 기업 같은 구체적 대상과 함께 시장 여건과 같은 추상적 대상도 포함했다. 해결 부분에서는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책임 주체와 대안이 제시된 경우 코딩했다. 해결 방안은 한국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추진,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시장 개혁과 같은 항목들로 분류했다.

넷째, 방송 뉴스의 마지막 문장에 드러난 기자들의 평가 내용을 코딩했다. 방송 뉴스의 특성상 방송 기자들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 정책에 대한 평가나 상황에 대한 전망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눠 코딩하였다.

1) 주체(Kappa=0.82), 행위자(Kappa=0.88), 문제 정의자(Kappa=0.89), 기자 평가(Kappa=0.80)

<표1> 시기별 금융 위기 뉴스의 주제 변화

(N=395)

	시기	주요주제	뉴스 건수
시기 1	경제위기 잠복기 (2008.9.1~ 2008.9.14)	한국 금융 문제(52%) 9월 위기설(31%)	28
시기 2	경제위기 발생시 (2008.9.15~ 2008.10.10)	한국 금융 문제(40%) 국제 금융 문제(40%)	120
시기 3	경제위기 성숙기 (2008.10.11~2008.11.1)	한국 경기 부양(44%) 국제 금융 문제(24%)	95
시기 4	경제위기 확산기 (2008.11.2~ 2008.11.29)	국제 금융 문제 (30%) 한국 경기 부양(28%) 한국 민간 대응(19%)	84
시기 5	경제위기 정리기 (2008.11.30~2008.12.31)	한국 경기 부양(45%) 국제 금융 문제(20%) 한국 민간 대응(16%)	68

다섯째, 개별 날짜의 뉴스 프로그램에 담긴 관련 뉴스들을 묶어 ‘뉴스 패키지’로 재분류하여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았다. 뉴스 패키지 안에 배열된 기사의 위치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코딩했다. 분석 대상 시기 동안 <뉴스 9>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뉴스가 묶여 방송된 전체 ‘뉴스 패키지’의 수는 모두 94개였으며, 한 개의 뉴스 패키지에 포함된 리포트들의 수는 평균 5개 정도였다.

여섯째, 경제위기 이슈가 발생, 성숙, 확산, 정리되는 과정에서 <뉴스 9>의 주요 주제는 초기 한국 금융 시장의 위기 상황을 경유하여 경기 불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주제의 변화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내부의 문제로 새롭게 정의되고 해결책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방송 뉴스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였는지를 드러내준다. <뉴스 9>의 시기별 주제는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5단계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내용 분석만으로는 뉴스에 담겨 있는 복잡한 구조와 미묘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분석 방법을 병행했다(Hallin, 1986). 뉴스에 대한 질적 분석 방법이 뉴스 패키지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체계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Tuchman, 1991).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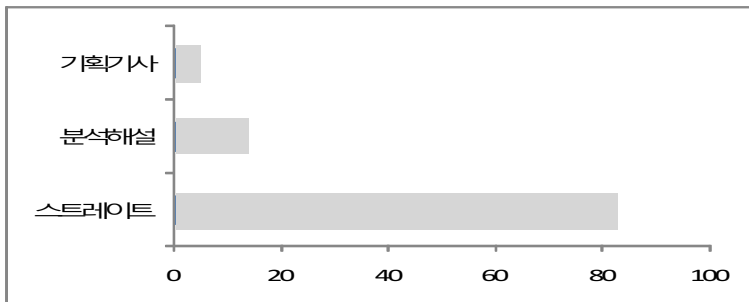
1) 개별 경제위기 뉴스의 의미

(1) 현상 위주의 사실 보도

〈뉴스 9〉은 급변하는 금융 시장 동향 지표와 정부의 발표 등 사실적 정보들을 중심으로 제작된 뉴스들을 보도했다. 〈뉴스 9〉이 경제위기 보도에서 객관주의에 충실했다는 점은 기사 작성자의 논평이나 의견을 담지 않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분석 해설과 기획 기사가 20% 미만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그림 2〉 참조). 스트레이트 뉴스 중심 편성은 금융 위기라는 급박한 사건 전개 속에서 쏟아지는 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 속에서 뉴스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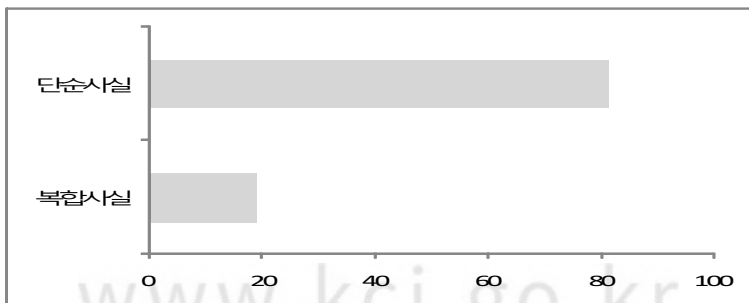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위기 관련 뉴스의 속성(%)

(N=395)



<그림 3> 스트레이트 뉴스의 사실 구성 비교(%)

(N=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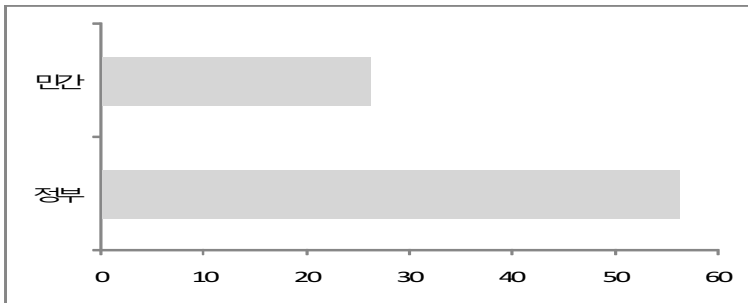
사실 보도에 충실했던 <뉴스 9>의 스트레이트 뉴스는 ‘단기적 지표’와 ‘증세’에 중점을 두고 사실의 망을 구성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스트레이트 전체 뉴스의 81%가 취재원이 단일하거나 시장의 지표 변화와 같은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정부 정책 발표와 시장의 평가를 함께 복합적으로 보도하거나, 복수의 취재원이 등장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2) 관급 보도의 범람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뉴스 9>은 관급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위기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원은 국내와 해외 정부였다. 스트레이트 뉴스 가운데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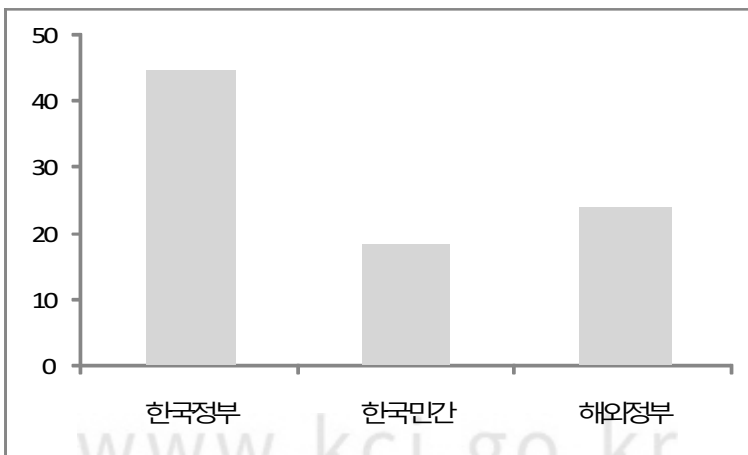
<그림 4> 스트레이트 뉴스의 취재원 비교(%)

(N=323)



<그림 5> 경제위기 뉴스의 행위자 비교(%)

(N=395)



발표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비중이 전체 스트레이트 뉴스 가운데 56%를 차지했다(〈그림 4〉). 시장의 지표 변화를 전달하는 리포트를 제외하면 민간 분야의 정보를 전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 의존적인 〈뉴스 9〉은 정부의 정책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전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경제위기 뉴스의 담론 구조 역시 압도적으로 정부 중심적인 것이었다. 뉴스의 담론 구조에서 행위자들은 행동하는 주체(subject)로서 이야기(narrative)를 구성한다(Smith, 1979). 〈뉴스 9〉에서 주어가 분명히 제시되고 능동적 행동이 나타난 기사는 정부 관련 뉴스로 집중되고 있었다. 전체 뉴스에서 드러난 행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었다. 여기에 해외 정부까지 포함하면 정부와 관련된 행위자는 70%에 가까웠다. 반면, 한국 민간인들이 ‘행위자’로 등장한 것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전체 뉴스에서 제시된 주요한 ‘행동’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발표, 집행, 국제적 공조행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 기간 동안 방송 뉴스는 다른 어떤 사회 부문 보다 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부각시키고 정부의 행동을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됐던 것이다(〈그림 5〉).

반면 외국 방송 뉴스들은 한국 방송과 달리 2008년 경제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보도 패턴을 보여주었다. 영국 BBC 뉴스는 실업과 사회 문제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었다(김성해·김동윤, 2009). 미국 네트워크 방송들에서도 경제위기가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²⁾.

다른 나라 방송사들의 경향과 비교할 때 〈뉴스 9〉의 정부 의존성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뉴스 생산의 정부 의존도는 뉴스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Schudson, 2003). 객관주의 언론은 정보원들로부터 얻은 사실적 정보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원의 선택과 특정 행위자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현실 권력 구조와 밀접한 유착 관계를 불가피하게 형성하게 된다.

(3) 분석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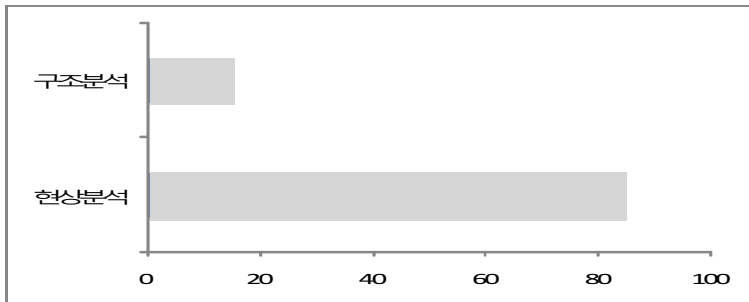
〈뉴스 9〉는 부분적으로 경제위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설하며 전망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과 해설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방송사 자체적인 기획에 따라 현실의 문제점과 원인, 배경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제작됐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분석과 해설 기사는 55개였다. 이 가운데 12개는 취재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앵커와 함께 논의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평균 길이는 3분 정도였다.

문제는 〈뉴스 9〉이 어떠한 분석 수준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가이다. 사회 문제들은 관찰자가 어떠한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즉 개인적인 차원의 단기적인 문제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집단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로 변형되고

2) Covering the great recession (2009, 10. 5)” <http://journalism.org>

<그림 6> 분석 해설 기사의 분석 내용 비교(%)

(N=55)



전혀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Rochefort & Cobb, 1994). 이런 관점에서 <뉴스 9>에서 다룬 경제위기 관련 분석 기사들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보다 단기적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분석 기사들 가운데 85%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단기적인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반면,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이나 장기적인 동향에 대한 분석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적 의미 분석에서 대안이 제시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이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대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뉴스 9>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 해설 기사 55개 가운데 35%인 19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결방안이 제시된 36개 기사들 가운데 70%인 25개는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제시된 내용들도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이고 모호한 대책 요구 또는 국가 개입의 촉구로 제한되었다.

2) 전체 관계적 의미의 경제위기 뉴스

(1) 뉴스 패키지 분석의 의미

2008년 경제위기 보도는 방송 뉴스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뉴스 패키지 중심의 뉴스 편집 특성을 잘 나타내 주었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경제위기 관련 뉴스 리포트가 묶여 뉴스 패키지 형식으로 방송된 날은 모두 94일이었다. 연속된 기사 수가 세 개 이상인 경제위기 뉴스 패키지 수는 74개였다.

<뉴스 9>의 뉴스 패키지는 형식적으로 관련 뉴스를 연결시키는 편집 방식이면서, 동시에 내용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창출해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뉴스 패키지의 전반부에는 시장 상황을 전달하는 리포트들이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정부 정책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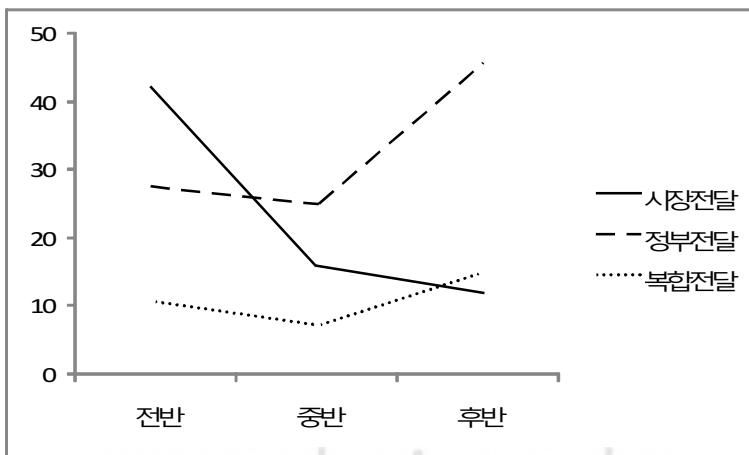
을 전달하는 리포트들이 배치되는 편집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뉴스 패키지의 전반부에는 금융 시장 지표나 지수 변화 등 시장 상황 관련 리포트들이 41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는 12개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 발표 등 정부 행위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패키지의 전반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시장 상황 전달보다 낮은 27개를 기록했고 중반부에 위치하는 경우도 25개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45개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동시에 포함한 복합적 전달 방식은 전반부터 후반까지 10개 내외에 머물며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한국 방송 뉴스 패키지 내에서 뉴스의 초점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르면서 시장에서 국가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장의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정부를 대조시키는 배열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둘째, 뉴스 패키지 내에서 앵커들의 수사적 단어 표현들로 관련 리포트들의 의미들이 새롭게 연결되고 있었다. 개별 기사들은 객관주의 보도에 충실하지만, 앵커가 사용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전체적인 의미 맥락을 부여 하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2008년 10월 30일 방송된 연속 기사 수가 6개인 뉴스 패키지를 살펴보았다 ([부록] 뉴스 패키지 사례 참조). [리포트 1]은 금융 시장의 상승세 분위기를 전달하였고, [리포트 2]는 미국과의 통화 협정 체결에 관한 사실 보도였다. [리포트 3]은 통화 협정에 대한 의미를 풀이하였으며, [리포트 4]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제시했다. [리포트 5]는 정부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통화 협정의 확대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림 7> 뉴스 패키지 내 뉴스 초점별 위치(개수)

(N=74)



다. 마지막 [리포트 6]은 정치권에서 통화 교환 협정 의미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리포트 6개 모두 개별적으로 취재된 사실적 정보들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6개의 리포트들은 앵커 멘트들과 내용의 연결성을 통해 새로운 추가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리포트 1]의 경우 [리포트 2]의 앵커 멘트에서 미국과의 통화 교환 협정 체결이 지표 상승의 원인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정부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리포트 2]와 [리포트 3], [리포트 4]는 미국과의 통화 협정 사실을 협정 내용과 의미, 체결 과정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었다. 이들을 연결하는 앵커 멘트 속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끈질긴 설득이 주효했습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해설이 강조되고 있었다. [리포트 5]와 [리포트 6]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인 통합을 성공시키고 있다는 해석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 보도에 충실한 개별 리포트들이 하나의 뉴스 패키지 안에서 상호 결합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추인하고 정당화하는 고차원의 정치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전반부의 시장 상황 전개 과정에 관한 보도의 의미는 후반부의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 제시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증거로서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 구조 속에서 정부를 전반부의 시장과 민간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주체, 행위주체로서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해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상위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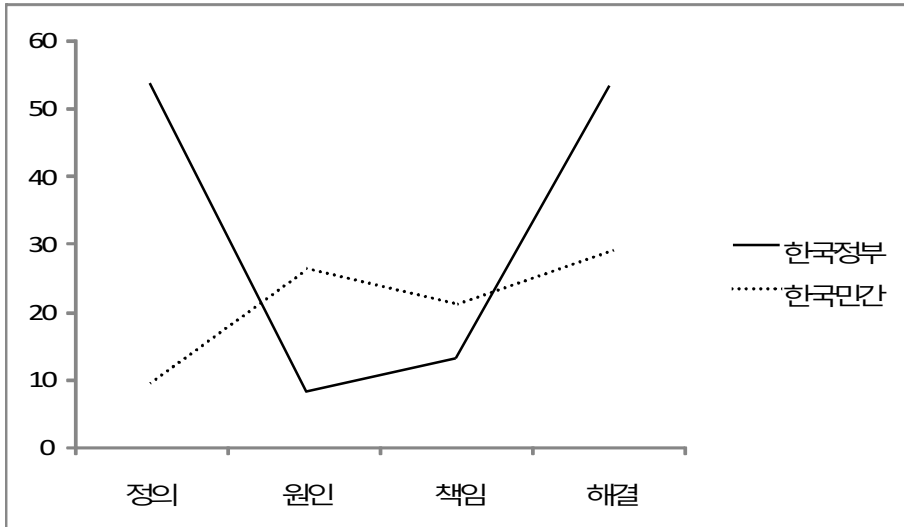
(2) 뉴스 패키지의 문제 구조

〈뉴스 9〉의 뉴스 패키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 정의, 원인, 책임, 해결 방안 제시라는 일련의 주제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뉴스 패키지 74개 가운데 이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문제 구조의 수는 143개였다. 〈뉴스 9〉의 문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뉴스 패키지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새로운 의미 창출의 메커니즘을 잘 나타내 주었다.

첫째, 〈그림 8〉에서 보듯이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 제시는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뉴스 패키지 기사에 나타난 문제 정의자 가운데 한국 정부는 50%를 차지했고 한국 민간은 10%에 불과했다. 문제 해결 방안에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경기 부양 등 한국 정부에 의한 해결책 제시 사례는 53%에 달했으며, 한국 민간 부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29%를 차지했다. 둘째, 문제의 원인과 책임으로는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시장 여건이나 민간 부문이 강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경제위기 상황을 야기한 원인 가운데 40%가 국내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지적되었고, 원인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26%에 이르렀다. 한국 민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26%를 차지했던 반면, 한국 정부

<그림 8> 경제위기 뉴스의 문제 구조 내 민간, 정부 위상 비교(%)

(N = 143)



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8%에 불과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38%였고, 시장 여건 악화는 24%를 차지했다. 한국 금융 기관과 한국 투자자 등 민간 부분의 책임이 제기된 것은 21%였고, 한국 정부 책임은 13%를 차지했다.

경제위기 뉴스 패키지에 담긴 문제 구조에서 정부는 한국 경기 불황과 금융 시장 위기에 대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문제 정의자로 부각되었다. 한국 방송 뉴스의 정부 위위적 문제 구조에서는 추상적인 시장 여건의 악화와 민간 부분의 잘못된 대응이 위기의 주요 원인과 책임으로 제시됐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반면 경기 부양 등 정부 대응책 마련은 주요 해결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즉, 경제위기 뉴스 패키지에서 발견되는 문제 구조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로는 정부가 강조된 반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의 주체로는 민간 부문이 부각되는 대조적인 양상이 발견되었다.

(3) 경제위기 시기별 언론의 역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기보다 상황 변동을 알리는 역할 (signalizing event) 과 사회 체제의 안정 회복을 위한 도구 기능만을 소극적으로 맡게 된다고 한다(Chiasson, 1995).

<뉴스 9>에서 방송된 인터뷰에서도 한국 방송 뉴스의 이러한 체제유지 기능 또는 정부지원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인터뷰 396개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이슈가 진행되어 나갈수록 정부 정책을 해설, 전달하는 내용이 증가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 발생 초기인 <시기 1>과 <시기 2>에서는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 인터뷰 내용은 각각 43%와 54%에 머물렀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개입이 심화되는 <시기 3>부터 <시기 5>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은 60% 내지 8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반면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인터뷰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정책 비판 내용은 10%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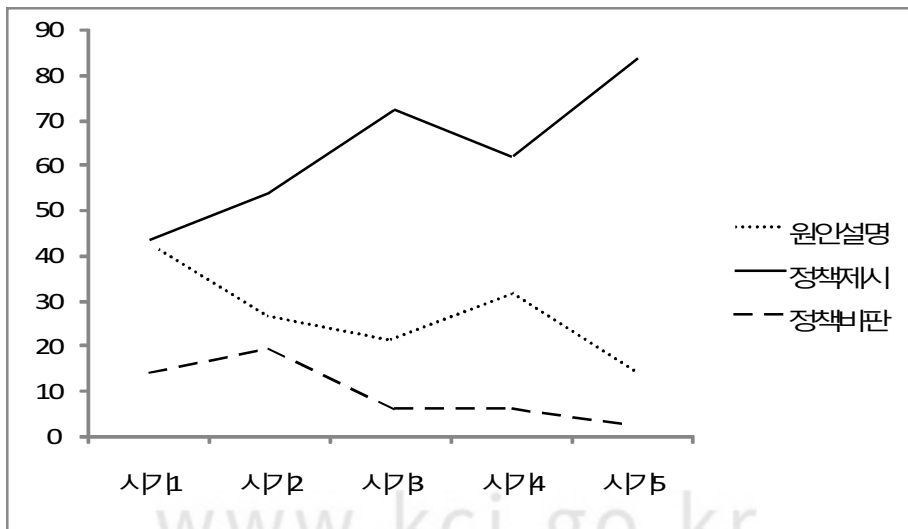
한국 방송 뉴스는 경제위기 보도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면서 현존 체제 유지 기능을 떠맡고 있었다. 한국 방송은 경제위기가 정부의 경기 부양 등 일련의 효과적 정책 집행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방송 뉴스는 시기에 따라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금융시장의 총체적 붕괴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반복 강조하는 등 정부 역할을 정당화하고 정부정책에 조응하는 뉴스 편집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시키고 있었다.

한국 방송 기사의 구성에서 마지막 문장인 클로징 멘트는 기사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뉴스 9>가운데 분석 대상 리포트들의 평균 길이는 105초 정도였다. 앵커 멘트와 인터뷰를 제외하면, 7개 내지 8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기사의 주제에 대해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평가를 고도로 축약시켜 압축적으로 표현해 낸다.

방송 기자들이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경제위기의 국면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

<그림 9> 시기별 설명 인터뷰 내용 변화(%)

(N=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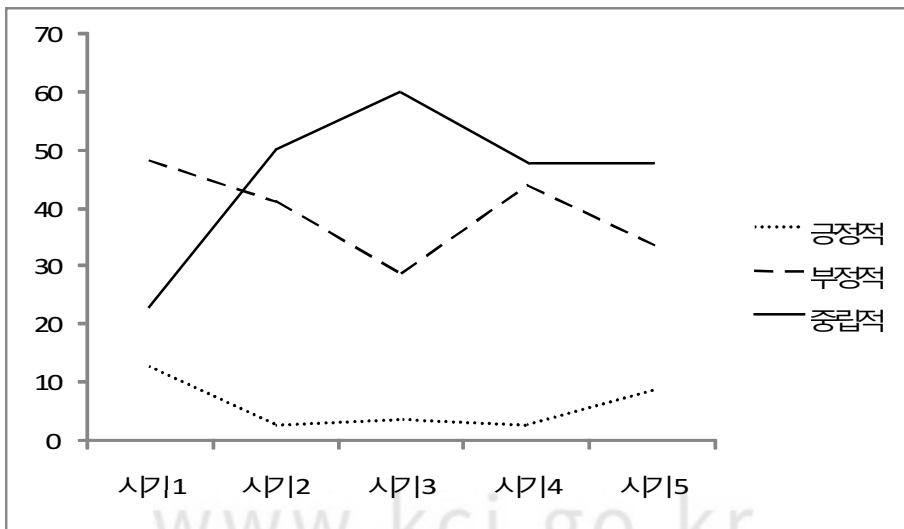


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위기가 잠복된 <시기1>에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전망하는 부정적 내용이 48%로 중립적 내용 24%를 상회했다. 경제위기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 2>에서는 상황을 중립적으로 보는 내용의 비중이 부정적인 내용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 3>에는 중립적인 내용이 60%로 부정적인 내용 29%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한 2008년 10월 21일의 <뉴스 9>의 클로징 멘트들의 경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11월 중에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실태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해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회생가능한 건설사만 선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와 같은 중립적인 사실들을 전달하였다. 경제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었던 <시기 4>에서는 다시 중립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격차가 4% 포인트 정도로 좁혀지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제시된 <시기 5>에서는 다시 부정적인 내용이 34%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결국, 기사 작성자들은 최종적 논평에서도 정부 정책의 중립적 전달자 내지 대책 수립 촉구자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정부 비판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포기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기자의 논평은 정부의 정책 제시 일정과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민간 부문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체적 대응 노력을 요청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위

<그림 10> 시기별 기자가 제시한 클로징 멘트 내용(%)

(N=368)



기 또는 문제의 소재는 민간과 시장 부문에 떠넘기면서 정부의 책임은 덮어두고 정부의 개입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노정되었다.

5. 요약과 토론

이 연구는 객관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 방송 경제 뉴스의 지배적 생산 관행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2008년 경제위기 보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방송 경제위기 뉴스는 개별적인 뉴스 차원과 뉴스 패키지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독특한 정치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첫째, 객관주의에 기반을 둔 방송 뉴스가 보여준 지배적 생산 관행은 경제 문제에 대한 국지적 접근과 정보의 축소를 통해 경제 문제의 총체적 맥락을 유실시키고 있었다. 개별적 경제 뉴스가 다루는 핵심 사실의 범위는 부분적인 금융 시장으로 축소화됐으며 현상적인 지표의 등락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동시에 사실 보도는 정부의 관급 보도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하는 정보를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서 기능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은 희박해지고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들만 부각되었다. 방송 뉴스가 경제위기와 관련된 개별 뉴스들을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들로 제한하면서 경제위기 전체 문제와 연결돼 종합적, 근본적 해결을 구하는 보다 넓은 상위의 맥락이 해체되었다. 그 대신 현상의 단기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촉구되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경제 의제가 설정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의를 왜소화함으로써 정부 역할의 주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경제 뉴스의 제1차적 정치 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의 고유 영역이 축소되는 만큼, 경제는 국가의 개입이 중심이 되는 정치의 영역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 보도에 충실한 개별 경제 뉴스들은 같은 주제로 연결돼 보도되는 뉴스 패키지 형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제2차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하였다. 경제위기 관련 뉴스들은 평균 5개 정도의 개별 리포트들이 연결되는 뉴스 패키지 형식으로 보도되었는데 개별 리포트들의 연결은 일정한 의미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패키지 전반부에서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드러나고 후반부에 ‘정부부문’이 이를 ‘해결’할 주체로서 등장하는 구성 패턴이 반복되면서, 문제는 민간에 존재하고, 해결은 정부가 맡는 분업체계를 정당화하였다.

뉴스 패키지에 드러난 ‘문제 구조’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틀이 제시되고 있었다. 위기에 대한 ‘문제’의 정의는 국가에 의하여 주도된 반면, ‘원인’과 ‘책임’의 주체에서 정부는 면책돼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자 또는 해결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고도로

강조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뉴스 패키지 내에서 단편적으로 나열된 개별 경제 뉴스들은 ‘경제’를 탈맥락화한 반면, 이들이 뉴스 패키지 안에서 재결합되는 과정에서 경제는 다시 정부를 중심축으로 삼아 재맥락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통치권의 강화라는 제2차의 정치적 의미를 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제1차적으로는 “경제”의 축소 내지 해체를 통한 탈맥락화를 통하여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제2차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국가 또는 정부 주도의 영역, 즉 정치의 영역으로 재맥락화함으로써 국가 통치권 (state governance) 의 강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한국 방송 뉴스의 정치적 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방송 뉴스는 현존 권력 질서인 정부의 국가 통치권 (state governance) 을 강화하는 정치적 의미를 생산해 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언론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공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준국가 기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박승관·장경섭, 2001).

물론, 경제 문제의 해결과 처방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일정 정도 항상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나,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타당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 또는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한국 방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비교,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송 뉴스가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고도의 정부 의존성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면서 정부 만능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남기게 된다. 한국 방송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감시, 비판, 평가하는 파수견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질서를 지지하는 유사 국가기관으로 존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방송 뉴스가 생산해내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위기 뉴스의 정치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더욱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첫째, 경제 뉴스 내용의 고유한 특성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정치 담론의 구성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탐색하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KBS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연구 대상을 공시적·통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한국형 방송 뉴스의 형식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치적 의미 생산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강미은 (2007). 『경제 보도의 나아갈 방향』.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삼성언론재단.
- 김성해·김동운 (2009). 금융위기와 언론: 2008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 언론의 보도양상과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98~134.
- 김성해·김춘식·김화년 (2010). 위기 경고하기 혹은 위기 초대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50호, 164~186.
- 김성해·안병익 (2007). 『글로벌 시대, 금융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승관·장경섭 (2001). 『언론권력과 의제동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승혜 (1999). 『TV 저널리즘과 뉴스가치 (1): 한국, 영국, 미국의 TV 뉴스 분석』. 한국 언론 재단연구서.
- 심재철 (1997). 『경제뉴스와 경제 현실: 바람직한 경제보도를 위한 논쟁』. 서울: 삼성언론재단.
- 이민웅 외 (2006). 『방송 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민웅 (1991). 『취재보도 시스템』. 서울: 방송언론연구원.
- 이성철 (2008). 위기의 금융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455호, 46~48.
- 이원수 (2008). 미디어의 경제 현실 매개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59~514.
- 제정임 (2003). 『경제뉴스의 두 얼굴: 화려한 유혹과 은밀한 배신』. 서울: 개마고원.
- 최혁 (2009).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서울: K-books.
- 한국언론재단 (2008). 『2008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연구원 (1997). 『경제 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Berkowitz, D. A. (1997). Non-routine news and newswork: Exploring a what-a-story, In D. A. Berkowitz (Eds.), *Social meanings of news: A text-reader* (pp. 362-3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iasson, L. (1995). *The press in times of crisis*.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Dagenais (1992). Media in crises: Observers, actors or scapegoats? In M. Raboy & B. Dagenais (Eds.), *Media, crisis and democracy: Mass communication and the disruption of social order* (pp. 120-132). London: Sage.
- Edelman, M. (1977). *Political languages: Words that succeed and policies that fail*. Academy Press.
- Entman, R. M.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pstein, E. J. (2000).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Chicago: Ivan R. Dee.
- Gamson, W.,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ans, H. J. (2003). *Democracy and the new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sfield, J. (1981). *The culture of public proble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 S.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New York: Holmes & Meier.
- Hallin, D. C.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yengar, S. & Kinder, R. K.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nnamer, J. D. (1994). *Public opinion, the press, and public policy*.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 Pan, Z. & Kosicki, G.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Rochefort, D. A. & Cobb, R. W. (1994).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Sanders, D., & Gavin, N. (2004). Television news, economic perceptions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Britain, 1997-2001. *Journal of Politics*, 66(4), 1245~1266.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Norton.
- Sheafer, T. (2007). How to evaluate it: The role of story-evaluative tone in agenda setting and pri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21~39.
- Shoenfeld, A. C., Meier, R. F., & Griffin, R. J. (1979). Constructing a Social Problem: The press and the environment. *Social Problems*, 27(1), 38~61.
- Smith, R. R. (1979). Mythic elements i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9(2), 75~82.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uchman, G. (1991). Qualitative methods in the study of news. In K. B. Jensen & N. W. Jankowski (Eds.), *A handbook for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pp. 79-92). London: Routledge.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최초 투고일 2010년 6월 1일

게재 확정일 2010년 9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0년 9월 30일

■ 부록: 뉴스 패키지 사례

[리포트 1]

앵커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 시장에 **오랜만에 화색이 돈 하루였습니다**. 원화 가치와 주가가 신기록을 쏟아내며 폭등했습니다.

리포트:

시중은행 외환거래 실에선 하루 종일 달러를 팔겠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통화교환 합의로 달러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개장부터 급락세로 출발한 환율은 1달러에 177원 내린 1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중략) ...

외환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주가는 사상 최대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 (후략)

[리포트 2]

앵커멘트:

이렇게 금융 시장에 훈풍이 분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의 통화 교환 협정 체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늘 한국은행과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도는 200억 달러, 내년 4월까지 한시적입니다.

... (중략) ...

[리포트 3]

앵커멘트:

미국과 통화 맞교환은 단순히 3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확보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포트:

이번 미국과의 통화 교환 계약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큼니다.

... (중략) ...

[리포트 4]

앵커멘트:

미국과의 통화 교환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의 끈질긴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에 통화 교환 협정을 타진한 것은 금융 위기가 확산되던 지난달부터입니다. 처음 미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 (중략) ...

하지만 신재운 재경부 차관보와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주축으로 한 꾸준한 설득작업이 효과를 봤습니다. ... (후략)

[리포트 5]

앵커멘트: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통화 교환 협정을 발판으로 중국, 일본과의 통화 교환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전략) ...

정부는 이 가운데 중국, 일본과 통화 교환 한도액을 늘리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로 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후략)

[리포트 6]

앵커멘트:

정치권은 한·미 통화 교환 협정 체결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천억 달러의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 보증 동의안은 오늘 처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한·미 통화 교환 협정 체결을 두 나라 공조의 결실로 평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내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중략) ...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 보증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후략)